

Petrobras, 시장가치 13계단 상승

80%p 올라 미주지역 17위에서 4위로 ... 1위 ExxonMobil은 15% 하락

브라질 석유기업 Petrobras의 시장가치가 미주 지역에서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국제 경제조사기관 Ecomatica는 8월5일 주식으로 평가한 Petrobras의 시장가치는 2008년 말 958억5000만 달러에서 현재 1735억9000만달러로 평가돼 중남미 지역에서 1위, 미주 지역 전체로는 미국 ExxonMobil, Microsoft, Wall-Mart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.

Petrobras는 2008년 17위를 기록했으나 시장가치가 2009년 들어 무려 81.1%p 상승하면서 단숨에 13계단이나 뛰어올랐다.

반면, 1위를 지킨 ExxonMobil은 2008년 4060억1000만달러에서 3445억1000만달러로 시장가치가 15.2%p 하락했다.

브라질의 세계적인 광산개발기업인 Vale도 시장가치가 2008년 584억7000만달러에서 76%p 오른 1029억3000만달러로 평가되면서 순위가 33위에서 22위로 급상승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06>